



빛의사람들

2023.12 제 340 호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발행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 주소 02862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20길 27 (빛의사람들) 전화 02)921-5093
FAX 02)921-7847 E-Mail kyodo@catholic.or.kr 홈페이지 www.catholic-correction.co.kr

머리글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피그말리온 효과

그리스 신화에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가 등장합니다. 그는 자신이 조각한 여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조각상에 이름도 붙여주고, 옷도 입혀주면서 살아 있는 애인처럼 대합니다. 신화에서는 결국 이 조각이 여인으로 변하게 되고, 두 아이까지 낳아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이 신화에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교육심리학 용어가 나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IQ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는 무작위로 20%의 학생을 뽑아 담당 선생님에게 명단을 주면서 이 학생들이 IQ가 높은 학생들이라고 알려줍니다. 그 후, 무작위로 뽑힌 20%의 학생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담당 선생님의 기대와 또 학생들이 그 기대를 의식한 결과로 설명됩니다.

수용자와 출소자들에 대한 사회의 좋지 않은 시선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점점 더 강한 형벌을 이야기하고, 형을 마치고 출소한 이들에 대해서 거주지 제한까지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격리를 언급하고, 사람을 죽이는 방법까지 언급합니다..

사람의 시선이란 얼마나 강력한가요. 미움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죽이고 싶을 만큼 싫어지는데,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조각상마저 사람으로 변하고, 평범한 아이도 성적을 올리게 됩니다.

우리 후원회원분들은 사랑의 시선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 시선이 우리 수용자와 출소자들을 변하게 만듭니다. 한 해 동안 보내주신 그 사랑의 시선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에게도 사랑의 시선을 보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성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



10월 26일(목)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주관으로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가 명동대성당에서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의 주례로 봉헌되었습니다. 특별히, 범죄 청소년을 기억하는 미사에서 최남식 베드로 신부(살레시오회)는 “가정 폭력 등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으로 보호받아야 할 집에서 나와 생활하다가 6호 처분을 받고 살레시오회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신부님은 제가 아는 어른들과 다르다’고 이야기 합니다. 저희가 한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먼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했을 뿐입니다.”라며 ‘사도 바오로’가 우리에게 전해 준 ‘복음적 삶’을 실천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청소년의 범죄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온 사회가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며,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형수를 위한 위령미사



11월 6일(월) 광탄성당에서 사형수를 위한 위령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정민하 울리오 부위원장 신부는 강론을 통하여 “우리는 모두 하느님 앞에서 철부지입니다. 철부지 같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어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하느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위령미사와 연도를 마치고 무연고 사형수 25명이 잠들어 있는 광탄 나자렛 묘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악천후에 젖은 낙엽으로 묘지까지 가는 길이 매우 미끄러워 후원자들의 안전을 위해 아래에 모여 합동 기도를 바치고 임직원들이 묘지를 찾아 정돈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1월 위령성월에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사형수 영혼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제29차 이사회



11월 17일(금) 명동 교구청에서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제29차 이사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사장 유경춘 티모테오 주교를 비롯한 이사, 감사들과 2024년 예산(안) 및 사업 계획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내가 100번째가 되어야겠구나’

박인숙 크리스티나_ 후원회원

우리 아차산 성당 신현우 신부님의 특별한 초대로 본당에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회원 모집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저는 미사 전과 미사 후에도 무척이나 바빴습니다.

미사 전에는 교리 여정 봉사가 있었고, 미사 중에도 성가대 식사 문제 등 지시사항도 생각해야 했습니다. 미사를 마치고 내려오니 성전 로비에는 후원하는 분들이 많아, 성가 연습 끝나고 후원 신청을 해야지 생각했는데, 성가 연습 끝나고 내려오니 접수대에는 직원분들도 휴식을 취하시는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느님이 ‘후원자 명단에서 나를 제외 하셨구나’ 생각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 미사 중에 신부님께서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 99명이 후원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내가 100번째가 되어야겠구나’ 생각하며, 본당 사무실에 연락하여 부탁하였습니다. 역시 늦었지만, ‘하고자 하니 되는구나!’라는 생각에 신청했더니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참으로 제 작은 힘이 보탬이 될까 싶었는데 연락을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누구나 죄인인데, 저도 물론 죄인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죄는 밍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이곳에 계신 분들은 특별한 심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힘닿는 대로 꾸준히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엘리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_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엘리는 ‘높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는 실로에서 대사제였으며,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습니다(1사무 4,18).

한나가 주님 앞에서 오래도록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그의 입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나는 속으로 빌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일 뿐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엘리는 그를 술 취한 여자로 생각하고 그를 나무라며, “언제까지 이렇게 술에 취해 있을 참이오? 술 좀 깨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한나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나리!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워 주님 앞에서 제 마음을 털어놓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그러니 당신 여종을 좋지 않은 여자로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너무 괴롭고 분해서 이제껏 하소연하고 있었을 뿐입니다.”(1사무 1,12-16)

엘리는 대사제임에도, 하느님 앞에서 기도하는 신자의 마음을 읽지 못합니다. 성경은 엘리가 ‘입을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입을 보는 것입니다. 한나는 마음이 무겁고, 괴롭고 분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입만을 바라본 엘리는 그녀를 술 취한 여자로 판단하고, 나무랍니다. 서투른 관찰과, 성급한 판단으로 인하여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마음을 살피지 못하고 입만을 바라보며, 하느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술 취한 사람으로 생각한 대사제가 하느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는 대사제이고, 판관임에도 성경에서 하느님과 대화를 한 구절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엘리가 하느님께 말씀한 구절도 없거니와, 하느님이 엘리에게 말한 구절도 없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해 빌어주겠느냐?’(1사무 2,25)라고 꾸짖기만 할 뿐, 그가 자식들의 잘못에 대해 용서해달라고 하느님께 청하지는 않습니다. 엘리 집안에 내릴 벌에 대해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하느님과 엘리가 직접 대화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찾아와 말합니다(1사무 2,27). 대사제가 하느님의 사람일진대, 그에게 얘기하기 위해 다른 하느님의 사람이 온다는 것이, 얼마나 서글픈 상황인지요. 더 의아한 것은 이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 엘리의 반응이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엘리는 이 말씀을 듣거나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느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엘리와 그의 무덤 영적 감수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두 번이나 사무엘을 불렀건만, 엘리는 그냥 돌려보냅니다. 세 번째에서야 하느님의 부르심을 깨닫습니다. 사무엘의 첫 부르심에서 하느님은 ‘엘리 집안을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을 내리시는 것을 보아, 얼마나 엘리에게 화가 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엘리 아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엘리의 죄악 때문(1사무 3,13)입니다. 이 소명 이후 엘리의 반응을 보면, 엘리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더욱 명확히 느낄 수 있습니다. 엘리는 하느님께서 무어라 말씀했는지 묻습니다. 하느님께서 엘리에게 직접 말씀하셔도 될 메시지를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엘리는 하느님이 무어라 말씀했는지 사무엘에게 물어봅니다. 마치 싸운 부부가 자녀를 통해 서로에게 말하는 형국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엘리의 말 “그분은 주님이시니, 당신 보시기에 좋으실 대로 하시겠지(1사무 3,18)”라는 말은, 하느님께 화가 잔뜩 난 상황에서 툭 내뱉은 말인 듯 느껴집니다.

판관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한 듯싶습니다. 전쟁이 나서 많은 이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구심점이 되어야 할 판관 엘리는 그저 길가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1사무 4,13), 전장의 소식을 전해 들을 뿐입니다. 하느님의 계약 궤를 전장에 모셔 왔음에도 크게 패합니다. 하느님의 궤도 빼앗기고, 삼만 명의 대학살을 당합니다. 엘리는 등장에서도 의자에 앉아 있었고(1사무 1,9), 마지막에서도 의자에서 죽습니다(1사무 4,18). 의자에 앉아만 있으니, 현장의 목소리와 마음을 어떻게 알아듣고, 공감할 수 있을까요.

사제로 하느님과 대화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을 게을리하며, 단지 입만을 살피는 엘리는 자녀를 키우면서도 자녀들의 마음을 읽기보다는 나타난 행동만을 판단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하느님께서 엘리가 아들을 ‘책망하지 않은 것’(1사무 3,13)이라 하지만, 엘리는 자녀를 꾸짖었습니다(1사무 2,23-25).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고약한 소문이 나한테까지 들리(1사무 2,24)’는 것에 대해 불쾌함을 보이는 듯 느껴집니다. 어쩌면 어릴 때부터 자신의 평판만을 생각하며 자녀를 키운 것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엘리는 실패한 아버지, 사제, 판관이었습니다. 의자에만 앉아 있다가, 평판만 중요시하면서 목세우는 일에 바빴던 그는,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1사무 4,18). 엘리의 모습이 낯설게 보이지 않습니다. 관료화된 성직자, 고위 공무원, 정치인들의 모습에서 엘리가 보입니다. 많은 현대의 엘리가 신자와 국민의 마음을 읽기보다는 언론만 살피고,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목만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삶을 묻다

이은정 강사_ 동서지행포럼 선임연구원

서울남부교도소 취·창업 교육에서 <관계의 힘- 경청과 공감의 힘>을 주제로 강의를 마칠 무렵 희끗희끗한 머리의 수감자가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23년간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노라며, 12월이면 출소를 하게 되어 회한과 설렘을 동시에 느낀다고 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자기 공감을 다루는 수업에서 자기감정을 관찰하고, 자기 신념을 찾아 흔들어보던 그가 강의에 대한 감사 인사 끝에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이제 사회로 나가면 나는 전과자로 살아야 하는데, 이런 강의를 하는 선생님이라면...”

경청과 공감을 강의하던 저였는데, 삶에 관한 질문에 적잖이 당황해, 뒤에 이어지던 그의 말들을 제대로 담지 못했습니다. 변명이라면 저보다 2~30년은 더 앞서 인생을 살았을 이가 내게 던질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럭셔리한 삶.... 나는 소유로 럭셔리를 판단하지 않아. 가장 부유한 삶은 이야기가 있는 삶이라네. ‘스토리텔링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럭셔리지」라는 이어령 선생님의 글을 소개하며 출소를 앞둔 그들이 누군가 비슷하게 넘어졌다 다시 걸어가는 이에게 길이 되어주는 삶을 살기를 응원했던 제 말도 영 신통치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삶에 대한 답을 논할 수 있겠냐고, 솔직히 저도 모르겠다고, 우리 모두 각자의 길 위에서 자기 삶을 살아갈 뿐이지 않겠느냐고, 다만 스스로 전과자라고 낙인찍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만족스러운 답을 드리지 못함을 사과했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며 몇 번을 고개 숙여 인사하던 그의 뒷모습과 함께 그가 던진 질문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이란 뭘까? 어떻게 사는 게 아름다울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념에 빠져들다 문득 그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란 무엇인지 되묻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각자가 정의하는 아름다움이 다 다르지 않겠는가? 어쩌면 그는 ‘아름다운 삶’을 ‘흠 없는 삶’과 동일시했던 건 아니었을까. 스스로 ‘전과자’라고 낙인찍고 있지만, 그 낙인을 들리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을 터, 그 낙인을 지우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고 싶은 강렬한 열망에서 물었던 질문은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그에게 되묻지 않았던 질문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그 날 함께 수업에 참여했던 수용자들 모두에게 각자의 정의를 물었다면, 그리고 그가 내리는 정의에서 스스로 답을 찾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자기 삶을 그려볼 수 있었을 텐데.... 다만, 뒤늦게 그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한자로 아름다움 ‘美(미)’는 ‘羊(양)’과 ‘大(대)’로 이루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관점에서 아름다움은 우리를 위해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신 하느님의 어린 양, 곧 예수님으로 풀어낸답니다. 우리 모두 하느님 앞에서는 죄인이기에 흠결 없는 삶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선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12월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시게 된다면,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건승하기를 바랍니다.>

+ 찬미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베드로입니다.

제가 사회로 돌아온 지도 벌써 6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새로운 진로로 전향을 준비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바로 일을 시작해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덕분에 헤어져 있던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차분하게 신변 정리와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탄 받아야 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정 외에도 도움이 필요한 곳이 많은 줄 알면서도 사양하지 못해 부끄럽습니다만, 도움을 주신 덕분에 오전, 오후 시간제로 일하며 한식 조리사 자격증 과정 수업을 받고, 합격하였습니다. 감사한 후원과 기도 덕분에 무사히 과정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가족에게 부끄럽지 않을 가장이 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매 순간 놀라운 일들로 주님께서 저희 가정을 축복해주고 계심을 깊이 느끼는 요즘입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나누고 싶어 아내와 함께 적은 금액이지만, 교정사목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받은 은혜에 비하면 부끄러운 시작이지만, 꾸준히 저와 같은 처지인 사람들에게 되돌려드리고, 언젠가 아이들과도 이 감사를 공유하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돌아올 때까지 저희 가정을 무사히 지켜주시고 저의 취직이 가능하게 해 주신 것은 하느님의 은총과 사회교정 사목위원회와 후원자들의 기도와 응원이 덕분입니다.

가족들도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지내고 있음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 안에서 제 가족들이 보살핌을 받고 은총 받고 있음을 늘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 주신 하느님과 신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올립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언제나 기도드리겠습니다.



2023.09.15.

베드로 드림

*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며 사회교정사목위원회의 수용자 가족 지원을 받고, 현재는 사회에 복귀해 생활하는 베드로 형제님이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님에게 보내는 감사 편지입니다. 형제님에게 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

2024년 1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 미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첫째 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 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 일시 : 1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2023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입금자 명의로만 가능

기부금 영수증은 위원회 통장에 기록된
입금자 명의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자 정보 알림

1월 5일(금)까지 발급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위원회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편 수령 별도 연락

우편 수령은 별도 연락 부탁드립니다.

2024년 1월 15일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확인 가능

1월 15일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홈페이지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홈페이지 메일 상단에
'후원확인'에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확인 경로 : 홈페이지 상단 '후원확인' 클릭 →
로그인 → 오른쪽 목록 '기부금영수증' 클릭



▶ 기부금영수증 조회



▶ 홈페이지 공지사항

귀한 사랑을 나누어주신 후원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후원사업부 : 02)921-5094 / 010-3732-5093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은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홈페이지 <게시판-공지사항>에서 출력 가능

● 행사 알림

- 12월 4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 미사 /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12월 5일(화)~6일(수) 기쁨과희망은행 소자본 창업교육 / 안양교도소
- 12월 7일(목)~8일(금) 기쁨과희망은행 소자본 창업교육 / 서울구치소 여사
- 12월 20일(수) 해밀 가족 모임 / 교정사목 센터
- 12월 22일(금) 서울구치소 최고수(사형확정자) 성탄 미사



● 새로운 교정사목 가족을 소개합니다. (23/10/16~11/15)

2023년 10월~11월에는 김재은 보나, 신철수님께서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한동수 요셉님께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 방법

1.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atholic-correction.co.kr>)
'후원신청'을 클릭 및 오른쪽 '모바일 후원신청 QR코드'로 신청

2.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 전화로 신청하기 / 후원사업부(02-921-5094)

3. 직접 은행에 신청하기

- 직접 자동이체 신청 시 후원사업부(02-921-5094)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7면 '후원 계좌'로 이체 등록
- 은행 방문 시 준비물(신분증, 도장, 통장) 지참 후 아래 계좌로 이체 신청



▶ 모바일 후원 신청